

보름째 “조사 중”... 의혹만 키운 합수부

원인규명 열쇠 조타실 1차 사고 여부 침묵 탈출 선원 청해진해운과 통화 내용 안밝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가 사고 원인을 풀어줄 수 있는 변침 전 1차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합수부가 초기 사고 책임을 묻는데 수사력을 모으면서 정작 사고 원인 규명에는 발 빠르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직접적 원인 조사에 나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일각에서는 아무리 문제가 있는

선박이라도 변침(선박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일)으로 침몰하는 경우가 없는데, 조타기가 고장 나는 경우도 극히 희박하다는 점에서 변침을 전후로 한 또 다른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형편이지만 남측할만한 수사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55분 1등 항해사 강모(42)씨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긴급 무전을 치기 직전 조타실에 있었던 3등 항해사인 박모(여·25)씨,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한 수사를 수차례 진행했다는 것 외에 사고 당시 조타기가 왜 그렇게 급격하게 돌아갔는지 등에

대해서는 합구하고 있다.

이미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1차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선체적 결함 또는 복원력·과적 때문인지 파악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반응이다. 하지만 합수부는 “확인해 줄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온갖 주장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합수부가 ‘침묵’하면서 오히려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격적으로 해야 할 압수수색도 사전에 예고되는 등 ‘진절할’ 합수부가 다른 갖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말도 많다.

합수부는 또 세월호 선장·1등 항해사·승무원(매니저)과 인선 청해진해운 본부측과 전화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들은 사고 당일인 오전 9시1분부터 10

시16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청해진해운 본부측과 전화통화를 했다.

특히 1등 항해사 강모(42)씨는 침몰 중인 세월호에서 구조돼 해경 경비함으로 옮겨진 뒤 청해진해운 본부측과 수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양측간 통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청해진해운 측이 구조 조치 지시를 내렸는지와 퇴선 명령과 관련해 적절한 지시나 조치가 있었는지 파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합수부는 “조사 중이다. 수사 내용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현재 합수부엔 18명의 검사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목포해경 수사과 등 50여명의 해경이 투입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사리 손들의 작은 기원 광주시 북구청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0일 광주 중흥어린이집에서 자연재난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녹색재난 안전교실을 열고, 어린이들과 함께 세월호 침몰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노란리본을 달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과적 책임’ 청해진해운 임직원 2명 체포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는 청해진해운측이 무리한 증축과 과적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합수부는 지난 30일 세월호에 짐을 과도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씨와 이사 안모씨를 체포했다.

김씨와 안씨는 청해진해운에서 각자 다

른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렸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빈번하게 과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과적, 구조변경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판단해 각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또 수사본부는 세월호 출항 당일에도 승

무원이 배의 과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청해진해운측이 무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3천608t(자동차 180대 포함)이나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가 복원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화물 987t보다 3배 많은 수치다. 청해진해운 직원 2명이 체포되면서 피의자 수는 선박 안전 15명을 포함, 모두 17명이다.

합수부는 또 사고 해역 주변에서 휴대전

화 8대 등 유류품을 확보한 뒤 대검에 영장복원을 의뢰했다. 침몰사고를 전후해 세월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보겠다는 의도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GSHIN UNIVERSITY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세월호 참사 풍자 ‘한국에서 여객선 타는 법’ 만화 화제

탑승할 선박은 증축되지 않았는지 선장은 비정규직 아닌지 확인하고 선실은 선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대기 안내방송은 탈출의 비상 신호

‘위도와 경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GPS 장비를 구입한다.’, ‘배의 선실은 선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선원들이 다니는 곳에 도청기를 설치해놓는다.’

최근 인터넷에 ‘한국에서 여객선을 안전하게 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17컷짜리 짧은 만화 내용이다. 지난 29일 인터넷 사이트 ‘팟캐스트’에 처음 올라온 뒤 누리꾼의 공감을 얻으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날라지고 있다.

29일 올라온 지 하루 만에 6000명이 넘는 누리꾼이 ‘좋아요’를 누르며 공유하고 있다.

‘신너루’라는 작성자가 올린 만화 내용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다룬 것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비판하고 있다.

승객을 ‘나 몰라라’한 승무원과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해양경찰, 대형 참사를 불러온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 국민이 공

감할만한 내용이 줄거러다 만화는 한국에서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해 모두 17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표를 사기 전 운항하는 배 선장이 비정규직은 아닌지, 대리 선장은 아닌지 확인하기’가 첫 번째다. ‘증축·개조 여부와 화물 적재량 확인하기’, ‘구명정이 작동되는 지 미리 레버를 당겨 확인하기’, ‘구명조끼 수량 세어보고 탑승자 수와 대조하기’가 뒤를 이었다.

‘배 선실은 선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불가능할 경우 선원이 다니는 길에 도청장치 설치하는 것’도 준비사항으로 꼽았다. ‘선실에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은 공극의 비상신호라는 대사도 나온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비참한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우물타는 반응이 나온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창사 62주년

광주일보 62년, 미래를 밝힐 '100년 신문'으로

광주일보 창사 62주년을 축하합니다

광주일보는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 회장 고춘석(해양도시가스 사장) 외 회원 일동